

## 대열 속에서

“부정 선거 고쳐 해라!”

옆을 걷고 있던 친구가 무엇에 떠다밀린 것이나처럼 다시 소리를 질렀다. 연달은 절규에 목이 터져, 그만한 발성을 하는 데도 젊은 힘을 모아야만 하여 목줄이 굵게 선다. 스크럼을 짠 양팔에 힘이 주어진다. 뜨거운 손이다. 손목의 혈맥이 펄떡펄떡 뛰었다. 그 손이 끌어안은 명서의 목줄기에서도 혈맥이 펄떡펄떡 뛰었다. 뛰노는 혈맥들이 서로 부비며 서로의 혈관이 이어지는 일종의 황홀감이 번진다.

반사적으로 명서는 받아 외쳤다.

“부정 선거 고쳐 해라!”

숨이 차와, 그것은 부르짖음이라기보다 무엇인가가 파열하는 음향 같았다. 그러나 그 파열음은 포효가 되어 온 누리를 채워 흔들었다.

“부정 선거 고쳐 해라!”

수만의 젊음들의 포효였다.

누군가가 또 외쳤다.

“마산 사건 책임져라!”

해일처럼 우렁찬 복창이 이어진다.

“마산 사건 책임져라!”

따라 외치며 명서는 눈을 들었다.

파아란 하늘이다. 가로수가 선뜻 눈에 들어왔다. 파아랳게 새잎이 피어난 가지들이 4월의 빛을 향하여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다.

봄이었다. 모든 것은 긴 겨울의 잠과 중절(中絶)에서 깨어나, 지금 깊이와 힘에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생명이었다. — 너무나 자명(自明)하고 거칠 것 없고 숨김 없는 강렬한 생명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계시였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다. 목마르게 바라면서 얻지 못했던 답이 거기 있었다. 생명! 전을 같은 것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명서는 저도 모르게 친구가 하듯, 자기도 가슴을 솟아올리고 스크림을 짠 양손에 힘을 주었다. 양손에 닿는 짧은 목들 — 거기서도 혈액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생명의 증거였다.

우리는 살아 있다. 살아야 한다.

서로 부딪치며 모든 상념이 무너져 내려, 이 자명한 사실 속에 용해되어 가는 것을 명서는 오히려 허탈 같은 긴장 속에서 느꼈다. 무의식(無意識)이란 거대한 경험 체계(經驗體系)의 주제가 또렷이 의식 표면에 떠올라 오는 것 같았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라!”

다시 노호(怒號)가 터져 나온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라!”

명서는 목에 힘줄을 세우며 외쳤다. 성대에 녹이 스는 듯 음성이 켄 켄하다. 목이 타는 듯 마르다. 그러나 그는 외쳤다. 외쳐야만 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라!”

그리고 스크림을 짠 채 달음질로 옮겼다.

먼지가 마구 일어난다. 먼지 속을 학생들은 외치며 달렸다. 저마다 지닌 같은 마음과 마음이 같은 공간에 모여, 하나의 의지(意志)처럼 달리는 것이었다.

명서는 자신의 중량이라는 것이 이미 없어진 것을 아스라이 깨달았다. 투명한 무게가 없는 기명같이, 어느 맑은 쾌감과 열의를 담은 채 그는 달리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안도(安堵) 같은 느낌이었다. 이 큰 의지와 분노 속에 자기를 놓아 버린다는 것——그것은 일종의 자기 긍정(自己肯定)이었다. 전체 앞에 자기를 상실하고 그런 상태 속에 오히려 새로운 자신을 되찾아 그런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착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이 현재의 사고(思考)는 계시처럼 진실된 것 같았다. 그는 이 순간 착각이 두렵지 않았다.

아와——

합성이 올랐다. 그러자 앞으로만 앞으로만 밀리던 물결이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또 경찰대가 뛰어든 것인가! 긴장이 전류(電流)처럼 흐른다. 젊은이들은 더욱 서로 굳세게 어깨를 겨 당겼다.

명서는 고개를 빼어 앞을 살폈다. 저만치 세종로 네거리가 보이고 길이 보이는 한 온통 길을 메운 검은 물결이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뒷걸음 쳐 오는 발이 발끝을 밟았다. 뜨거운 것이 발끝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에 그는 비로소 한쪽 발에 구두가 없는 것을 깨달았다. 교문을 나오자 습격해 온 경관대에 쫓기던 일이 번개같이 머리를 스쳤다.

교문을 나설 때 그들은 해야 할 말을 하려 가려는 젊은 지성들이었다. 평화로운 속에서 따질 것을 따지고, 고칠 것을 건의하려는 밝은 양식들이었다.

그러나 아직 학생들이 교정에서 전부 풀려나기도 전에 몰려온 경관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악귀같이 대열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방망이가 난무했다. 발길질이 오고 간다. 닥치는 대로 치고 부수는 경관대에 몰려 학생들은 교정으로 다시 뛰어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

뒤를 쫓는 경관들을 피하며 뛰다가 가로수에 부딪쳐 비틀거렸다.

누군가가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옆을 스쳐 달려갔다. 그 서늘에 명서는 차도와 보도 경계선 위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쓰러진 그의 위를 덮쳐 오던 턱걸이를 맨 검은 몽똥어리가 시야를 가득히 채웠다고 느낀 순간, 어깨에 내려진 불덩어리 같은 뜨거운 감각——아픔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맞았다는 사실보다 맞았다는 자각(自覺)에 무엇인가가 터져 나온 것이었다.

돌맹이가 마구 날기 시작했다. 붉은 벽돌장이었다. 맹충맹충한 아스팔트 길 위 어디서 얻어 온 돌맹이인지, 아찔해 오는 눈에 그 벽돌들은 붉은 공처럼 멀리까지도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경관대가 흩어졌다. 이윽고 다시 대오를 지은 젊은이들은 이미 앞서 교문을 나왔던 그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매끄러운 이마 밑에 사색과 의구와 이지와 평정을 담고 있었던 학도들은 이제 분노에 불타는 사자들이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생명의 물결이 성내며 흐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잠시 비실거렸던 물결은 다시 앞을 향하여 밀려 갔다. 함성은 대열의 안에서도 밖에서도 우리같이 터져 나왔다. 연도를 메운 군중들의 호응이었다. 박수와 성원(聲援)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명서는 패이고 돌이 구르는 도로 위를 어느새 바닥이 떨어져 나간 양말밭로 밟는 고통을 잊고 있었다. 어느 절정을 향하여 신경이 태업을 감는 것 같은 금속성을 내며 긴장해 갔다.

“행정부는 책임져라!”

목이 터져 갈라진 음성이 쥐어짜여진다.

참기 어려운 고통처럼 젊은 얼굴들이 일그러지며 구호는 되풀이되었다.

“행정부는 책임져라!”

서로 팔과 팔을 엮기운 등판에 땀이 배어난다. 함부로 발산되는 건 강한 체취에 숨막힐 듯 농밀해 오는 공기. 아스팔트를 차는 구둣발 소리가 높다. 누군가가 비실거렸다. 그를 양옆에서 일으켜 세우며

청년들은 스크림을 짠 팔에 더욱 힘을 준다. 목이 타듯 말랐다.

네거리의 눈앞에 있었다. 대열이 또 주춤한다. 서대문과 남대문 쪽에서 온 대열들이 거기서 합세를 하기 때문이었다. 노호와 흥분과 어쩔 수 없는 혼란이 왔다.

이제 완전히 마비된 발을 밟히며 명서는 뜨거운 숨을 내어 뿔었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붉은 소방차가 대열을 헤치며 중앙청 쪽으로 달려갔다.

저만치서 노호가 다시 천둥처럼 일어난다. 대열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 같은 움직임이다. 물결은 크게 한 번 굽이친 후 다시 앞이 막혔다.

광화문 네거리였다.

눈앞에서 반공 회관이 검은 연기를 뿜고 있었다. 햇빛에 불꽃빛을 잃은 낮불은 맹렬히 타고 있으면서 보는 눈에 깨끗이 타고 있는 인상은 주지 않고, 무슨 악의 의지(意志) 같은 것이 그을고 있는 느낌을 주었다.

좀 전에 달려간 소방차는 그 앞에서 있었다. 호스에서 굵은 물줄기가 반원을 그리며, 차와 타는 집 사이에 무지개처럼 걸려 있었다.

그러나 햇빛을 받아 무지개처럼 찬란히 빛나던 물줄기는 이내 흩어지기 시작했다. 차 둘레를 청년들이 둘러싸고 그 주변은 높은 호흡소리와 매리(罵詈) 소리로 벌집을 쭈셔 놓은 듯 왕왕거렸다.

호스는 청년들 손으로 빼앗겨진 모양이었다. 물줄기는 하늘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섰다가, 분수처럼 비말이 쏟아지더니 둘러쌌던 청년들의 원이 풀렸다.

소방차가 몸을 비비듯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길이 트여지자 소방차는 이쪽으로 서서히 움직여 왔다. 가득히 타고 있는 것은 홍조된 얼굴에 눈동자를 반짝이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자랑스럽게 얼굴을 높이 들고 손을 흔든다.

“여러분! 때는 왔습니다. 독재의 아성은 바야흐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청년 하나가 메가폰 대신 두 손을 입에 모으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갑자기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다.

“만세 — 만세.”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였다. 쿵고, 우웅 울리도록 풍부하고, 그리고 거둬졌을 노호와 흥분과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쉬지도 갈라지지도 않은 채 있었다.

이내 호응이 있어 만세 소리는 대기를 뒤흔들었다. 만세는 세 번 되풀이되었다. 그 쿵은 음성은 전체의 포효 속에서도 가려 들을 수가 있을 정도로 우웅 울렸다. 가까운 까닭만도 아닌 성싶어, 명서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뒤에는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이, 놀랄 만큼 가까이, 땀과 먼지에 때묻은 보지 못하던 얼굴들이 스크림을 짠 채 다가서 있었다. 여러 방면으로부터 모여든 학생들은 애초 학교별로 대오를 지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뒤범벅으로 섞여 버린 모양이었다.

음성의 입자는 즉시로 짐작이 갔다. 그는 명서가 서 있는 데서부터 두 사람을 사이한 뒤에 있었다. 이쪽으로 옆얼굴을 보이며 옆의 청년에게 무어라고 묻고 있는 눈치였다. 낮은 소리였으나 그 말은 우웅 울렸다.

“뭐! 서울신문사두?”

청년은 약간 발은 목을 돌려 뒤를 돌아보다가 몸을 추스르고, 그런 동작으로 헐거워진 어깨와 어깨를 조이듯 양옆의 친구들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저도 모르게 경악이 터졌다. 창수였던 것이다.

잠시 정지되었던 대열이 두어 발 앞으로 나간 것을 명서는 모르고 있었다. 뒤에서 들이닥치는 얼굴들이 아직도 뒤로 향한 채인 얼굴에 부딪쳐 오고 앞으로 발을 내딛고 있던 양옆 친구들의 손이 자기 어깨

에서 풀려 나갔다.

그는 비틀거렸다. 몸의 균형을 본능처럼 이내 바로잡혀졌으나, 명서는 자기가 대열에서 빠져 나와 있는 것을 알았다. 눈앞이 아찔했다. 그는 다급한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찾았다.

같은 줄에 있었던 친구들은 여전히 스크럼을 짜고 앞을 쓸어 가고 있었다. 자기를 사이하고 떨어져 있었던 친구들이 이번에는 바짝 붙어 어깨를 엮기우고 간다. 자기가 끼어 있었던 자리는 아무래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마음이 비틀거리 왔다. 뒤를 돌아보았다. 바로 뒤를 바짝 다가 열에 뜬 젊은 얼굴들의 대열이 짝 짜여진 채 육박해 오고 있었다. 끼어들 자리는 거기도 없었다.

쓰러져서 못발에 밝히지 않으려면, 어깨를 세우고 만일의 경우엔 팔꿈치를 쓸 수 있게 주먹 권 손을 양 젖 위에 하나씩 얹어야 했다.

의식의 참가 없이 명서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다.

대열은 밖에서도 안에서도 그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저 따라 움직였다. 대열에서 튕겨 난 채 발이 독자(獨自)의 의지처럼 대열을 따라 걸어간다. 진공 지대를 가듯 육체가 자기의 의지(意志) 밖에 있었다.

허허한 공간 속에 홀로 방척(放擲)된 것 같은 외로움이 엄습해 왔다.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의구와 소외감과 뉘우침과 호소할 수 없는 억울함과 떳떳지 못한 반발과, 그리고 그 밑에 바탕처럼 깔려 있는 유죄감(有罪感)에 시달리는 평상의 자기가—— 그것은 무엇에 건드려질 적마다 아파 오는 묵은 상처였다. 항상 소외 받는 느낌, 저항하면서, 외면하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매여 있는 저주 같은 연대감(連帶感)——

대열에서 밀려난 것은 우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명서는 거기 본연을 보았다. 같은 공간을 딛고, 결코 한 차원(次元)에 설 수 없는 이질(異質)의 단위(單位)가 당연(當然)하게도 가려내어진 것이다.

와아 와아

앞뒤에서 폭풍처럼 일어나는 함성이 멀리서 오는 소리나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뜨거운 기운이 머리 위, 어깨, 얼굴 할 것 없이 확확 끼쳐 온다. 대열은 불타고 있는 반공 회관 앞을 지나고 있었다.

대열이 설렌다. 검은 연기가 움직일 때마다 널름거리는 불꽃의 혀가 보였다.

연기는 거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맞은편 체신부 신축지 앞에서도 가는 연기가 뻗고 있었다. 백차가 한 대, 거꾸로 젖혀진 채 타고 있었던 것이다.

대열의 흥분은 극도에 달해 갔다. 구호는 이제 정연하게 외쳐지지 않고 저마다 부르짖는 의미 없는 함성이 한데 엉켜, 성난 바다의 포효처럼 공간을 뒤흔들었다.

명서의 발은 여전히 대열을 따라갔다. 맨발이 된 발바닥에서는 피가 번지고 있었다. 아픔은 느끼지 못했다. 다만 들레의 공기가 희박해 오는 것이다. 현실이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한때의 흥분이 지나면 언제나 돌아가는 곳 '자기'가 버티고 있었다. 거기 들어앉음으로써 모든 절단(切斷)을 견디어 내야 했다. 자기에의 투신(投身)은 버릇이었다. 거기엔 어두운 걱정조차도 필요치가 않았다. 그는 깊숙이 그 속으로 잠겨 갔다. 그러면서 그의 발은 여전히 대열 속에 끼어 있었다.

대열은 두어 걸음의 전진이 있는가 하면, 다시 그만큼 물러서기도 했다.

그는 눈을 떨어뜨렸다. 앞과 옆을 가는 발들이 눈에 들어왔다.

발, 발, 발, 검은 단화, 코도반, 너털너털하는 초콜릿빛 군화, 검정칠을 한 앞끝이 둥그런 군화, 반 찢어진 운동화, 더러는 자기처럼 한쪽 구두짝이 달아난 맨발도 섞였다.

술한, 술한 발들이다. 바쁘게 숨 가쁘게들 움직이고 있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 어디로?

“국민에게 사죄하라!”

아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느닷없이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했다.  
우렁찬 소리다.

갑자기 뒷덜미를 붙들린 것처럼 명서는 현실로 돌아왔다.

“국민에게 사죄하라!”

누구의 선창인지 모른다. 모르는 대로 모두는 그 구호를 받아 외쳤다.

‘창수가 선창을 하고 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명서의 머리를 때리고 지나갔다.

‘창수가—— 창수가—— 창수가——.’

증거는 없어도 그것은 확신이었다.

학생이 뺏어 탄 소방차를 향하여 “만세 만세”를 부르던, 그 굵고 우렁찬 음성——무엇인가가 타고 있던 그의 씩씩한 얼굴——그렇다! 이 생명의 대열 속에서 이질인 자기를 발라낸 것은 창수의 그 우렁찬 굵은 음성이었다.

현기가 왔다. 대열은 정지되었다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명서의 발도 움직이고 있었다. 어쩔어쩔한 눈앞을 여전히 슬한 발들이 간다.

어디로? 향하는 곳은 생명의 땅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그는 그 슬한, 슬한 어지러운 발들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왈각 두려움이 덤벼들었다.

창수——목숨——그리고 슬한, 슬한 발들——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 의식의 배경(背景)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그것은 의식의 일부분처럼 집요하게 고집하며 아무리 애써도 갈아내지를 못했던 것이었다.

방금 외쳐진 구호 소리가 자기를 향하여 쇄도해 왔다.

“국민에게 사죄하라! 국민에게 사죄하라!”

명서는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앞을 여전히 무수한 발들이 막

고 있었다. 그 발들은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뺏어져 그의 시야를 채워 갔다. 마음의 시야까지도.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다. 속도계는 정지한 채였다. 앞이 막혀 자동차는 뒤차에 끼인 채 답답하게 밀려 가야 했다. 헤드라이트 앞을 굽은 빗줄기가 가로 때리며 내리치고 있었다. 차 캐비닛에 부딪친 빗줄기는 거기서 부서져 비말이 오렌지빛 거품이 되어 튀었다.

“엄마아——.”

“——야아——.”

“여기야아——.”

비명 같은 부르짖음이 길 양쪽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

척, 척, 척, 척——

젖은 도로를 침범거리고 밟으며 어지러운 발길들이 소리를 내고 걷는다.

비가 사정없이 내리갈긴다. 머리에서부터 마구 전신을 비에 내어 맡기며 행렬은 끊임없이 굽이쳐 갔다.

척, 척, 척, 척——

먼데서 포성이 은은히 들려왔다. 초라한 물결의 발길들은 더욱 어지러이 초조해진다.

차 한구석에 오그리고 앉은 열한 살 난 명서는 사태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다. 어른들의 서슬에서 공포와 경악이 옹아 와 겁에 질린 채 창문 옆에 박혀 앉아 있었다.

“아부지——.”

이 빗소리에 얽혀 또 어린아이의 비명이 들려왔다. 명서는 몸을 오들오들 떨었다. 차가 발동하던 순간, 비명처럼 울부짖던 창수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다. 믿었던 일들, 당연하였던 일들이, 모두 일그러져 흔들리고 있었다. 자기의 운명이 전쟁에 말려들어가며 있는 것은 어린 마음에도 어렵듯이 짐작이 갔다. 그러나 아직 전

쟁은 어느 거리를 두고 있었다. 쉽게 쓴 영웅전에서, 또는 역사 이야기 속에서 읽어 얻은 것은 전쟁의 의의였던 것을 그는 몰랐다. 전쟁의 방법이 어떻다고는 어린 그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그 방법 앞에서 사람이 보이는 수성(獸性) 같은 것은 더욱 알 길 없었다.

그저 무서웠다. 총소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공포보다도 공포의 예감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일어난 무슨 일보다 일어나려는 무엇인가가 무서웠다. 떠날 때 일이 그 때껏 머리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와그작거리고 있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졌었던 것이다.

비는 한층 더 기승을 부리며 쏟아졌다.

척, 척, 척, 척——

빗속을 여전히 무수한 발들이 간다.

명서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무서웠다. 눈을 뜨면 헤드라이트에 비쳐 떠오르는 광경이 이야기로 들은 지옥 같았다.

간단없이 찢어지는 비명은 다른 데서 오는 음향인 것 같고, 보기에 그들은 말없는 군상이었다. 이쪽으로 보인 등을 우그리고 무수한 발들이 초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앞으로 초조롭게 달리는 발길들——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었다.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이들도 모두 무서운 얼굴을 하고 앞을 노려보고 있었다. 꼭 다문 어머니의 입 언저리에 가끔 가늘게 경련이 일었다.

명서는 운전사의 얼굴을 윗눈질로 살폈다. 그러나 운전대에는 핸들을 잡고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실없고 사람 좋고, 자주 그의 장난의 공범자가 되어 주기도 하는 운전사 아저씨는 지금 짙은 눈썹을 모으고 두툼한 입술을 꾸욱 다물고 있었다. 자주 눈을 깜박거린다. 하룻새 턱수염이 구지레하게 자랐다. 핸들을 잡은 손은 우악스러워 보였으나 어깨는 힘없이 처져 있었다. 분노와 슬픔과 애처로움

이 눌러도 눌러도 배어 나오는 모습이었다.

어린 명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모르던 사람 같다고 느끼며, 깔았던 눈을 다시 치켜 이마 너머로 운전사 아저씨의 얼굴을 살폈다. 목이 넝마 조각 모양 흐느적흐느적 한다. 늙은 목이다. 그 목에서 소리 없는 비명이 흘러 나오고 있는 것 같았다. 창수 생각이 다시 머리에 떠올랐다.

자주 눈을 껌벅거리며 손을 모으고 있는 아버지 옆에 창수는 꾸지람을 듣는 사람처럼 고개를 떨어뜨리고 두 손을 바지 양 호주머니에 대고 서 있었다.

조용한 자세였으나 명서의 눈에는 창수가 발끝을 젖혔다가 놓았다가 하는 것이 보였다.

운전사 아저씨는 자꾸만 말을 더듬었다. 입속에서 우물거려 무슨 소린지 알아듣기 힘이 들었다.

마주선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풀지 않았다.

“응—— 데려갈 수 있으면야 좋겠네만, 자리가——.”

아버지도 운전사 못지않게 입속말이었다.

“차 뒷뚜껑이라도 좋습니다.”

무척 어려운 발음이나처럼 운전사는 잇새로 간신히 말을 밀어 낸다.

눈이 유리알처럼 번들번들하다.

“글쎸.”

아버지의 대답은 여전히 시원치 않다. 어머니가 식모와 가정 교사를 재우치며 부랴부랴 꾸린 짐을 끌고 나왔다.

안색이 변해 있었다.

쿠우웅——

포성이 울려 왔다.

“여기서 뗏들 허구 있어요. 저, 저 대포 소리 들으셨어요. 자, 신씨 어서 차뚜껑 열구 이걸 어서.”

높은 소리도 아닌데 어머니의 음성은 마구 짹짹 갈라졌다. 눈이 치켜 올라가고 저고리 고름은 풀려 있었다.

어머니의 서슬에 가정 교사가 차 뒷뚜껑을 열고 짐을 쭈셔 넣었다. 문이 탁 하고 닫히자 아버지의 마음은 결정이 된 모양이었다.

“뭘 오래 걸리진 않아. 그저 한껏 잡아 사흘이지, 내일 안으로 돌아오게 될지두 모르구.”

또 대포 소리가 은은히 들렸다. 아버지는 정신이 든 듯 갑자기 서둘기 시작했다.

“자아, 당신은 어머니 뒤편 옥희랑 뒤에 타구 옥란이는 무릎에 앉아라. 난 명서와 앞에 앉겠다. 신군, 이러구 있을 때가 아냐. 어서 떠나야 해.”

운전사의 어깨가 힘없이 떨어졌다. 창수가 아버지 옆으로 바짝 다가섰다.

“아버지.”

눈물이 글썽글썽하다.

“가지 마, 우리허구 여기 있어, 응?”

운전사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다. 흠칫하며 아들의 작은 어깨를 당겨 몸에 팔을 감았다.

“뭘 허구들 있어. 빨리 떠나야 한다니까. 저봐요. 대포 소리가 가까워 오잖아요.”

어머니가 발악같이 뾰족한 소리를 지른다. 그녀는 벌써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크고 작은 짐보따리들이 사람이 앉은 자리만 빼어 놓고 뻑뻑하게 놓여지고, 짐에 둘러싸인 옥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명서야 어서 타, 당신은 또 뭘 그렇게 꾸물거리구 기세요. 이렇게 촉박한 때.”

어머니는 마구 쏘아붙였다.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는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짐을 꾸리던 일은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차 문을 손수 열고 거기도 짐짝이 들어박힌 앞자리에 간

신히 비비고 들어가 앉은 후, 명서를 무릎에 앉혔다.

“신군 시간이 없어. 어서 가야 해.”

우스운 일이지만 이 순간 아무도 운전사가 그의 가족과 함께 처지려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자기들의 행동 외에는 가치를 보지 않고, 자기들이 곧 질서라고 생각하는 족속들이었다. 그리고 운전사는 그 일그러진 질서 속에서 몇 해를 같이 살아온 사람이었다.

“신군 뿔허구 있어. 빨리 가자니까!”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 소리는 이제 호령이었다.

운전사는 아들을 안았다. 뺨을 갖다 대었다. 그리고 한참을 있었다. 그러나 드디어 그는 결심한 듯 손을 놓았다.

차에 오르는 운전사는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정원 한구석 차고 옆에 있는 운전사 집 앞에 그의 가족들이 나와 서 있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울음이 터졌다.

“아버지이!”

창수의 소리가 따라왔다. 운전사는 필요 이상으로 마구 클랙슨을 눌렀다.

명서는 웬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는 것이 송구했다. 말없이 짐보 따리 하나를 그의 무릎 위에 얹어 놓고, 창가 가까이 끼어 앉았다.

바깥을 내다보며 아까부터 누르고 누르고 있었던 것이 울음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중앙청을 앞에 보며 데모대는 앞으로 더 나가지 못했다. 안국동 쪽에도 해무청으로 가는 길에도 데모대의 물결은 밀려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좀 전의 흥분에서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어느 누구라고 지명할 필요는 없었다. 누구라도 좋았다. 우연히 앞서게 된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할 일을 그대로 해 줄 것을 믿고 있었다. 믿음으로써 잠시나마 잠잠히 시간을 참는 것이었다.

그렇다. 넘친 요구가 아닌 것이다. 지배권을 잡으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인간, 그 자체의 최소 한도(最小限度)를 인정해 주면 그만인 것이다.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처리되리라.

그들은 기다렸다. 앞에 설 수 있었다면 저마다가 하였을, 같은 일을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을 것이었다. 외치고 싶은 소리는 다 외쳐 버린 뒤였다. 이젠 사무적 처리가 남아 있을 뿐이다. 기다리는 시간의 초조를 덜기 위하여 그들은 땅위에 앉기 시작했다. 모두들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연도를 메웠던 사람들 틈을 헤치고, 여인네들이 물통에다 물을 길어 담고 데모대 쪽으로 다가왔다. 하나같이 목이 타도록 말라 있었다. 물순배가 돌아왔다.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릴 만큼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연도는 여전히 군중으로 차 있고, 박수 소리가 끊임없이 터졌다.

수많은 청년들의 체취와 호흡과 주고받는 말들이 한데 엉켜, 하나의 거대한 음향이 웅웅거릴 뿐, 드높은 노호는 터져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명서의 귀에는 아직도 그 노호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국민에게 사죄하라! 국민에게 사죄하라!”

그것은 굵고 우웅 울리도록 풍부한 창수의 음성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그 소리를 오래오래 전부터 들어오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창수는 10년이 넘도록 그 소리를 외쳐 왔으리라. 다만 그 소리가 명서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뿐이었으리라.

——그 때, 창수는 울고만 있었다. 그러나 울음 소리만으로 들은 것은 이쪽의 귀가 먹었던 까닭이었을 것이다. 울음으로 갈아앉힐 때까지의 분노, 저주에 굶이쳤던 마음의 경로를 그들 가족은 아무도 몰랐다. 아프게 같이 슬퍼하기엔 너무도 보잘것없는 ‘남’의 일이었다. 오히려 그런 말썽꾸러기 가족이 한 집안에 거처해야 하는 것을 꺼렸던 것이다.

창수 어머니가 죽은 것은 그 해 7월 하순경이라고 들었다. 근로 봉사로 동원되었다가 폭격을 받아 즉사했다는 것은 같이 나갔다가 살

아 돌아온 동네 사람의 말이고, 가족들은 시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창남이는? 창남이는?”

미친 듯이 큰딸을 찾던 창수 아버지도, 그 딸이 역시 동원되어 인민 병원에서 일하다가 북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는 보이지 않는 작은 딸의 소식을 물으려 하지 않았다.

작은딸인 창순이는 여맹에 나가게 되어, 제법 연설 같은 것도 배워했던 모양으로 수복 후 부역자로서 어딘가에 수감되어 있다는 소문이었다.

“에그머니, 모두들 빨갱이가 되었었군요. 무서워라. 온 속들을 알수가 있어야지…….”

명서 어머니는 진저리를 떨었다. 가장이 남하했다 하여 시달리던 끝에, 발을 들여놓은 길이라는 것은 끝내 알려 하지도 않았다.

운전사 신씨는 그 때부터 더욱 충실한 고용인이 된 것 같았다. 부역한 딸을 돌이나 가진 자기를 해고도 않고 두어 주는 주인의 관용이 황송한 모양이었다.

영영 끊어진 둘째딸의 소식은 굳이 알려 하지 않고, 그는 넓어진 방에서 창수를 데리고 기거하게 되었다. 1·4 후퇴 때도 신씨는 명서네 가족을 싣고 부산으로 떠났다. 차가 넉넉한 탕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창수도 뒤에 남지 않고 부산으로 피난길을 떠났다.

주택난으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속에 변소 옆방 하나를 얻어 지내게 된 신씨는 그것을 무척 고마워했다.

한집에 살면서 명서는 차차 창수와 노는 것이 싫어졌다. 신씨한테도 공연히 심술을 부렸다. 고관댁 외아들의 거칠 것 없는 어리광이라고 남들은 보았을 것이다.

피난 생활 속에서 명서는 중학생이 되었다. K 중학을 수석으로 들어간 꼬마 수재였다. 창수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역시 서울서 피난해 온 K 사립 중학 분교생이었다. 그들은 집에서도 학교에서

도 다른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같은 집에서 사는 같은 또래이면서, 둘의 사이는 조금씩 멀어져 갔다.

고용인의 아들이라 같이 어울리는 것이 싫은 것은 아니었다. 다니는 학교가 일류와 그 밑의 급이라 하여 말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유가 못 되었다. 그저 그가 싫었다. 그리고 싫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를 확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법이다. 식모들 얼굴에 안대하는 표정이 스칠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피해감은 명서 쪽이 더 심했다. 창수를 대할 때마다 받는 압박감 같은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두려움에 통하는 감정이었다. 그의 얼굴을 볼 때면 늘 떠오르는 것이 그날 밤의 일들이었다. 웃는 얼굴을 대하고 있을 때도 웃는 얼굴 위에 자꾸만 울고 있던 그때 그 얼굴이 덮쳐 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핵(核)같이 의식 속에 박혀 버려, 병균처럼 의식을 파먹고 들어가는 것 같았다.

신씨 부자는 아무리 보아도 성실하고 충실한 고용인이요, 믿을 수 있는 동거인들이었다.

“박 장관은 좋은 운전사를 가졌어.” 이것은 아버지의 동료들의 말이었으나, 명서는 속으로 머리를 저었다.

아직 성숙지 못한 의식을 표현할 능력은 없었으나, 좀더 심각한 증오나 원한이 있어야 할 곳에 충실과 정성을 볼 때, 오히려 인간이 지닌 마성(魔性) 같은 것에 닿는 느낌이었다.

한집에 살면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는 날이 계속되었다.

그런 속에서 하나는 화려한 양실에서, 하나는 판잣집이나 진배없는 차고 옆방에서 두 소년은 성장해 갔다.

시간이 흘렀다.

명서는 고교 졸업반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수석을 양보해 본 일이 없는 수재로 이름이 높았다. 수석 자리를 고집하여 공부한 일은 없다고 자부하며, 거기 얽혀 있는 자신을 깨닫곤 쓴웃음을 지을

때가 많았다. 고관의 외아들로서 생활의 부자유가 있을 리 없었던만 언제나 한구석이 찌뿌드드했다.

어느 날 자기 방 창가에 서서 그는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다. 응접실 위 처마와 옆에 서 있는 향나무 사이에 무엇인가가 걸려 살랑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어찌다가 햇빛이 번쩍 지나곤 하는 것을 보고 그는 그것이 거미줄인 것을 알았다.

흥미 없었다. 시선을 거두려 하는데, 참새 한 마리가 그리로 날아 들었다. 고쳐 볼 사이도 없이 참새는 거미줄을 뒤집어쓴 채 땅 위에 떨어졌다.

명서는 창 밖으로 몸을 빼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미줄을 뒤집어쓴 채 참새는 잔디 위를 두 다리를 모으고 깡충깡충 뛰고 있었다. 공중에 걸렸을 때 투명한 아름다움을 지녔던 거미줄은, 이제 너저분한 회색 녀머처럼 지저분해 보였다. 한참을 뛰다가 참새는 아무래도 거북한 모양이었다. 뛰기를 멈추고 거미줄을 털어 버리려는 듯 고개를 흔들다. 거미줄이 뚫리며 눈이 나왔다. 참새는 뛰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부자유스러워 보인다. 참새도 시원치 않은 모양으로 날려 들지 않고 자꾸 뛰다간 머물곤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명서의 입 언저리에 쓴웃음이 번져 갔다. 웬지 그 참새가 자기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때였다. 갑자기 쿵고 우렁찬 베이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귀익은 흑인 가곡이었다. 우렁차고 풍부하며 어딘가 애조를 띠었다.

노랫소리는 뒤뜰에서 들려오는 모양이었다. 자유롭고 거리낌없는 가락이다. 명서는 그쪽으로 가보고 싶어졌다.

계단을 뛰어내려 뜰로 나갔다. 차고가 있는 뒤뜰로 돌아 가려니까 아버지의 차가 차고 앞에 서 있고, 거기서 좀 떨어져 신씨가 정원 들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완강하게 생긴 남자가 이쪽으로 넓은 등판을 보이며 호스로 차체를 씻고 있었다. 노래는 그 입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모양이었다.

명서는 그 옆으로 다가갔다. 명서를 보자 신씨가 용수철에 튕겨지거나 한 것처럼 돌에서 일어섰다. 그 서슬에 노랫소리가 끊어졌다. 사나이가 호스를 든 채 고개를 돌렸다. 몰라볼 만큼 자란 창수였다. 두툼한 얼굴에 여드름이 성했다. 완전한 성인이 거기 서 있었다. 두 해 전부터 어느 집 가정 교사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후 만나지 못한 창수였다.

명서는 저도 모르게 그 앞으로 다가갔다. 반가웠던 것이다. 손을 잡으려 했을 때였다. 신씨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느닷없이 허리를 굽히기 시작했다.

“이 자식이 버릇없이——그저 아무두 안 계신 줄 알구.”

명서는 어리둥절하여 그의 몰골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한참 만에야 그는 신씨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았다.

불이 꺼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 가는 것을 또렷이 의식했다. 해말간 얼굴의 소녀처럼 고운 눈동자가 얼음같이 찼다. 그 찬 눈초리로 신씨 부자를 한 번 훑고 그는 발길을 돌렸다.

뒤에서 숨을 죽인 신씨의 질책이 들려왔다.

“글쎄, 이 주책없는 자식이야 조심 좀 허라니깐——.”

어느 저주에서 놓여 난 것 같은 흥가분함이 명서의 전신에 퍼져 갔다. 그 후부터 신씨 부자의 존재는 완전히 그의 의식에서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명서가 창수를 다시 본 것은 지난해 초여름, 그러니까 대학 3학년 때였다.

그는 임업 시험장 숲속 길을 거닐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한학년 아래의 여학생이 옆에 있었다.

소녀는 옅은 핑크빛 앙고라 반팔 스웨터에 폭 넓은 흰 스커트를 받쳐입고 있었다. 한창 피어오르는 녹음 속에 그것은 보드라운 파스칼 톤을 이루어, 어린 새의 깃 모양 폭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름답다고 느꼈다. 마음속으로 평화와 애정이 봄물처럼 밀려들어 왔다. 더럽혀진 채 얼어붙었던 가슴이 풀리는 것 같았다. 독을 품은 안개처럼 머리속에 끼어 있었던 것이 걷히고, 머리속에까지 파아란 하늘 빛이 흘러들어오는 것이었다.

옆을 걷고 있던 소녀가 문득 걸음을 멈춘다.

“나비, 나비예요.”

명서는 그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노랑나비가 한 쌍, 서로 위로 갔다, 아래로 내려왔다 하며 날고 있다.

“노랑나비였어요. 노랑나비!”

말하고 소녀는 화안히 웃었다. 탄력 있는 음성이었다.

귀여웠다.

“왜 애훤, 노랑나비가 좋아?”

“아네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어요. 봄에 처음 보는 나비가 흰나비면 그 해 상제가 된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 처음 본 나비거든요.”

명서는 말없이 그녀의 전연 루주를 칠하지 않은 보드라운 핑크색 입술을 지켜보았다. 입술 위에 솜털이 얽은 그림자처럼 나 있었다.

눈이 쌓이듯 조용히 말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어린 소녀처럼 탄력에 찬 말 태도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렸을 때 들었다는 하찮은 그런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신기스러웠다. 그것은 어버이에 대한 지극한 효심과 깊은 애정의 고백이었다.

애희는 조용한 학자의 가정에서 세 오빠 밑에 태어난 단 하나의 딸이었다. 아버지는 언어 학자이고, 두 오빠는 이학 계통에서 학위를 얻은 소장 학자들이었다. 명서는 부자 박사 댁이라고 불리는 이 집을 처음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갔었다. 애희의 아버지인 송 박사는 명서의 큰아버지와 동창이라는 것이었다.

남의 집을 방문한 일이 거의 없는 명서는 그 후 송 박사 댁을 종종

찾게 되었다. 접촉할수록 그 집 분위기 속에 깃든 깊은 교양과 신의와 애정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송 박사 댁에서는 언제나 그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면 아무도 명서의 존재를 안중에 두지 않았다. 격하는 일은 없었지만 아프도록 준엄하게 정곡을 찌르는 것이었다. 그런 가정에서 아버지와 오빠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 온 애희는 그래서 이름이 애희(愛姬)라는 것이었다.

받은 사랑 위에 자신의 사랑을 더 얹어 송두리째 바치는 딸의 효심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었지만, 그만큼의 사랑을 바칠 수 있는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은 딸의 행복이 아닐 수 없다고 명서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만 보면 그런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기에 혐오를 느낄 수 밖에 없는 불행한 자식이었다.

언제나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 가득 차 있는 가지각색의 고무신들——여인네의 아침에 찬 부자연한 웃음이 새어 나오는 안방, 거짓말이 예사로 흘러 나오는 군살에 문힌 입, 알 수 없는 출입이 잦은 것은 무슨 까닭인지 짐작이 가서 눈살이 찌푸려졌다.

미국서 결혼한 두 딸의 몸에서 난 외손자들의 사진을 문갑 위에 놓고, 눈귀의 주름을 더욱 패이며 들여다보곤 하는 인자한 모습은 아무도 그날 밤 신씨를 재촉하던 모습과 이어질 수는 없었다.

몇 해 전부터 익히기 시작한 가야금 가락도 풍류로는 들리지 않았다. 벽에 걸린 가야금 줄이 어머니의 육지(肉脂)로 번들거리는 것 같아 불결했다.

아버지는 좀 달랐다. 좋은 아버지였다. 넓은 지식과 깊은 교양도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일그러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서는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대어든 일은 드물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비난과 반발을 알고 있었다.

아침마다 책상 위에 자기 욕설을 퍼부은 야당지가 보라는 듯이 펼쳐져 있었다.

언젠가는 응접실 벽에 보도 위에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어린 거지 아이의 커다란 사진이 붙어 있었던 적도 있다. 외국에서 온 귀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던 날이었다.

비서가 다급하게 떼어 버렸지만 다급한 그 태도가 오히려 손님의 눈길을 끌었던 것을 알았다. 정치의 빈곤이 빚어 낸 사회 참상의 일면을 폭로함으로써 아버지를 고발하려는 아들의 심정이 원망스러웠다. 어쨌든 애비가 아닌가?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아버지의 관차를 초속으로 몰아 길가 구멍가게 판잣집 귀퉁이를 부순 일이 있었다. 차 넘버가 문제가 되어 그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나지 않았으나, 어느 야당지에서 호되게 얻어맞았다.

그날 진종일 아버지는 속이 끓어 뒤집어졌었다. 그래도 번잡한 일에 쫓겨 집에 돌아간 것이 열한 시 반, 지쳐 있었다.

클락슨 소리를 듣고 문을 연 것은 명서였다. 전에 없던 일이다. 도전 같은 행위라고 아버지는 속이 한 번 더 뒤집혔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기도 전에 명서는 계단을 밟았다.

“기다려라.”

아버지가 소리쳤다. 숨찬 사람 모양 한숨을 돌린 후 그는 말을 이었다.

“애기가 있다.”

그날 밤의 대화는 아직도 머리에 생생히 남아 있다.

“관차다. 변호는 누구나 다 아는 변호야.”

아버지의 말은 아들의 신경에 직통으로 와 닿았다.

“누구나가 다 아는 변호 때문에 안 된단 말씀이죠?”

아버지의 안색도 변했다. 긴 세월을 두고 내려온 ‘아버지’의 위엄이, ‘아버지’의 절대권이 호령으로 터졌다.

“이놈, 입 닥쳐라.”

예기치 않았던 높은 소리에 자기도 놀란 듯 아버지는 흠칫하다가 약간 음성을 수그렸다.

“그래, 네 행동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지?”

아들은 아까부터 고개를 세운 채였다.

“제 행동이라구요? 제 행동이 아닙니다. 제 속에 있어 부패와 멸망에 항거하는 무엇인가가 시킨 충동이에요. 목구멍까지 찬 구정물을 토하려는 몸부림의 몸짓이었던 거예요.”

“너와 나다. 추상적인 언사는 치워라. 넌 무슨 말이 허구 싶은 거냐?”

“난 이제 견디기 어렵단 말입니다. 난 건강한 제수(除數)가 되고 싶은 거예요. 평범하게 거리낌없이 쏘다닐 수 있는 공간이 갖고 싶단 말입니다. 어딜 가도 내가 비쳐 있는 이 둘레의 거울을 깨 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남들이 소리칠 때 나도 거기 합치고 싶단 말이에요. 남들이 울 때 나도 그 눈물에 젖어 보구 싶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죽음의 길로 몰고 있다는 집권자의 핏줄기인 까닭에, 모여드는 눈길들이 지긋지긋하단 말이에요. 이 고독, 이 소외감, 이 죄악감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는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외치다가 문득 그는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의 침통한 얼굴을 보았다.

“명서야!”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아들은 왈칫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아무두 절 학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고관의 외아들입니다. 모두들 남들이 소중히 대접해 주지요. 대학에선 몇 년에 하나 날까말까 한 수재라는 소문입니다. 아껴 주는 것이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는 울먹이며 떠듬떠듬 말을 이어 갔다.

“허지만 전 거기 섞이며 느끼는 것이예요. 불을 질러 놓고 그 불을

끄러 가는 사람 틈에 몰래 끼어 가는 죄의식 —— 괴로운 건 그것이에요. 그 죄의식이에요.”

아버지가 일어서서 이쪽으로 걸어왔다.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잠이 부족하나 부다. 어서 가서 자거라.”

아들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버지는 잘 주무세요?”

“.....”

“전 잘 수 없어요. 차라리 벌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죄의식이 한정되어 잠이 올 것 같지만.”

그는 말을 끊고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는 말이 없다.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아버지의 입이 열렸다.

“젊음은 하나의 신앙이야, 그러나 언젠가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은 한숨 같았다.

“모든 것은 변천하는 것이란다. 젊음은 모든 기성의 가치를 증오하고 모든 낡은 것을 쓸어 버리려 하지만, 오늘의 새로움은 내일의 낡은 벽이 되고, 그 벽을 무너뜨리려는 새로운 힘이 또 일어나지 않구 배기지 못할 거야.”

“그럼 아버지는 지금의 정세를 긍정하시나요?”

“전적으로 긍정할 수는 없지. 허나 바퀴는 굴러가고 있는 거야. 어찌면 불이 붙은 채일지도 모르지만 가는 데까지.....”

아들도 의자에서 일어섰다. 한결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잘 자거라.”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도어의 노브를 잡았다.

아버지가 낮은 소리로 혼잣말처럼 뇌었다.

“일찍이 고인들은 우주(宇宙) 속에 있는 인간의 위치와 의미 같은 것 때문에 괴로워한 것 같은데, 우린 현세의 체재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하는구나.”

방을 반쯤 나오면 아들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또렷이 확신 있게 말을 던졌다.

“한발짝 한발짝 가야 합니다. 몸에 불이 붙었는데 우주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한꺼번에 풀 수 있어요.”

“왜 가만히 기세요, 지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러세요?”

애희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고개를 가웃한다. 녹음의 향기가 배인 듯 향긋한 체취가 어렴풋이 코에 스몄다. 그리고 그것은 가벼운 채로 자꾸만 번져 가 녹음 향기에 가 섞였다. 순간 그녀는 그에 있어 전 세계가 되었다. 뜨거운 눈물이 전신을 달렸다. 난생 처음 그는 키스하고 싶은 충동을 강렬하게 느꼈다. 그 충동이 무서워 그는 눈을 굳게 감았다. 불이 켜진 듯 눈 속이 화안했다. 애희의 애절한 모습은 감은 눈 속까지도 들어와 있었다.

애희가 가만히 조심스럽게 뇌었다.

“왜?”

눈을 뜨니 애희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내려다보였다.

“난 애희가 좋아.”

불쑥 나온 자기 말에 그는 애희보다도 더 놀랐다.

그러나 한 번 더

“난 애희가 좋아.”

하고 갑자기 앞을 향하여 달음질을 쳤다.

한참을 애희는 난처한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갈림길이 앞에 있었다. 명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애희가 자기와 반대쪽으로 갈 것만 같았다. 그러나 발자국 소리는 이리로 따라오고 있었다.

명서는 기다리지 않고 자꾸 달렸다. 저만치 흰 꽃을 가득히 실은

나무가 우아하게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이 목표나 되는 것처럼 그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향기롭게 피어난 박(朴)나무였다. 5월의 햇빛을 받아 피어나, 5월의 바람에 향기를 실려 보내고 있는 박꽃. 처녀처럼 청순하고 향기로웠다.

명서는 문득 그 꽃으로 애회를 장식해 주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한 번도 나무에 올라간 일이 없건만 그는 잭싸게 가지를 탔다.

애회가 달려왔다. 뺨이 상기되어 있었다.

“아이 거기까지는 따라갈 수 없어요.”

응석같이 말하고 쳐다보는 애회,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었다.

가슴이 뻐근해 왔다. 눈앞에서 꽃들이 부른다. 하아얀 꽃들은 저마다 담백 축복을 안고 꺾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명서는 명령하듯 소리치고 나뭇가지를 휘어잡았다.

그 때였다.

“누구얏!”

우웅 울리는 굵다란 소리가 들리더니, 숲속에서 한 사나이가 나타났다.

“나무에 올라간 놈이 누구얏! 빨리 내려와!”

굵은 소리는 다시 우웅 울렸다.

명서는 가지에서 떨어질 뻔하도록 놀랐다. 거기, 역시 자기와 같은 해 어느 사립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은 채 오래도록 보지 못했던 창수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명서는 얼음같이 냉정해 있었다.

“내려오라구? 누구에게 명령을 허는 거야.”

“국가 재산인 임업 시험장의 나무를 다치려는 자에게 국민의 한 사람이 명령하는 거다!”

“무슨 권리로…….”

“국민된 권리로…….”

“난, 이 꽃을 꺾기 전엔 못 내려가겠다.”

“꺾진 못할 거다.”

“꺾고 말 테다.”

창수는 갑자기 나무에 달려들어 명서의 한쪽 발을 끌어당겼다. 익숙한 동작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곳이 그의 일터 일지도 몰랐다. 애희가 비명을 질렀다.

명서는 이를 악물었다. 우악스러운 창수의 팔이 사정없이 밑에서 발을 잡아당긴다. 가지에 건 손에서 힘이 빠져 나가고 있었다.

찰나에 창수의 손이 발에서 놓아졌다.

굵은 소리가 또 우웅 울렸다.

“가지가 부러지겠다. 그냥 내려와.”

그 어조엔 거역지 못할 위엄이 있었다.

명서는 힘없이 나무에서 내려왔다. 창수는 두어 걸음 물러선 자리에 뒷짐을 쥐고 기다리고 있었다.

명서가 땅을 디디자 창수가 앞에 와 섰다.

“모두 소중한 연구 재료란다. 탐이 나더라도 손을 댈 순 없어.”

부드러운 어조였다. 명서는 대꾸 않고 창수를 노려보았다. 창수는 태연한 얼굴이다. 돌연히 있는 대로 피가 얼굴로 올라왔다.

그는 손을 들어 창수의 두툼한 뺨을 후려갈겼다. 손바닥이 확 달았다. 활활 달은 손으로 다시 한 번 세계 다른 뺨을 쳤다.

그리고 갑자기 문 쪽을 향하여 뛰기 시작했다. 창수는 따라오지 않았다. 예상한 대로였다.

“미스터 바악——.”

비명같이 자기의 이름을 길게 부르는 애희의 음성이 따라왔다.

명서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을 번개같이 깨닫고 있었다. 애희는 영원히 자기의 행동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혹 무엇이 잘못되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녀를 품에 안지는 못할 것만 같았다.

그러한 행동을 용서할 수 있는 여성을 그는 용서할 수가 없었다. 결단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듯이.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가 집에 있었다. 일요일 오후였지만 희귀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서슬이 선 아들의 표정을 읽었던 모양이다.

“무엇이 있었더냐?”

“창수를 만났죠!”

“창수를?”

“네, 아버지가 6·25 때, 서울에 버리고 간 그 창수 말이에요.”

아버지는 또 얹혀 오는 아들이 역겨웠던지 앞에 놓였던 신문을 우정 들어올린다. 그러나 아들은 끝까지 몰고 들어갔다.

“제가 두 대 호되게 앵기구 왔지요.”

아버지가 눈을 들었다.

“왜?”

“창수가 너무 옳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방문을 닫지도 않고 아버지 방을 튀어나와 쿵쿵 소리를 내며 2층으로 올라갔다.

총소리는 돌연히 일어났다. 발포하리라는 생각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다. 벼락에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다.

와악——

하늘을 뒤흔들 듯한 고함 소리가 선풍처럼 일어났다. 학생들은 이제 스크림을 짜지 않았다. 분노의 불덩어리가 된 저마다의 마음이 모두 앞으로 앞으로 뛰기에 바빴던 것이다.

“총소리다. 총소리——.”

“개새끼들이 총을 쏘구 있어!”

짙은 눈썹들이 곤두서진다.

“발포한 놈은 누구냐!”

모두 이를 빠드득 갈았다.

넓은 길 가득히 들어선 학생들 위에 혼란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해무청 쪽으로부터 총부리에 쫓겨 되돌아오는 패들이 서로 부딪치며 뛰어들었다. 큰 파문이 번지듯 사람의 물결이 흩어졌다가 다시 아물어졌다.

총소리는 연방 울렸다. 총소리를 뚫고 어느 한패는 떼를 지어 중앙청 낮은 돌담을 검은 새처럼 가볍게 뛰어넘어 가고 있었다. 함성은 중앙청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와아——와아——

함성이 오를 때마다

따 따 따 따——

콩을 볶는 것같이 총성이 터져 나온다.

“엎드려라——엎드려라——.”

누군가가 숨이 끊어질 듯 절박한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들으며 명서는 중앙청 앞을 달렸다.

종이가 한 장 날아와 얼굴을 스쳐 갔다.

중앙청 안에서 날아온 모양이었다. 중앙청 안 마당은 학생들이 마구 날르는 종이 틈에서 춤을 추듯 날뛰고 있었다. 청사 안에서 서류들을 꺼내 그렇게 뿌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종이는 발밑에 깔렸다가는 바람에 다시 실려 올라가 먼데까지 떠갔다.

뭉테기째 던져 올려진 서류들은 높은 곳에서 터져, 허공에 꽂힌 폭포처럼 쏟아지며 떨어지기도 했다. 같은 종이이면서 떨어지는 각도에 따라 햇빛을 받은 면의 빛이 달랐다.

그것은 이 사나운 죽음의 마당에 핀 어지러운 도취의 한 줄기 서정(抒情)이었다.

따 따 따 따——

총성은 더욱 높아 갔다.

“몸을 비켜라. 무차별 발사다아——.”

좁 전의 소리가 또 절규한다.

합성에 클랙슨 소리를 막혀 버린 지프차가 한 대, 경무대 쪽에서 서서히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차 옆에 매달린 한 청년이 필사적으로 손을 휘저으며 길을 헤치고 있었다.

신문사 차였다.

그는 쉬어서 음이 새는 듯한 목소리로 찢어지는 듯 외쳤다.

“비켜라! 비켜라! 사람이 죽었다.”

지프차 안에도 차 위에도 사람이 누워 있었다. 숨이 끊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았으나, 지프차 위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 아스팔트 위를 얼룩지우고 있었다. 드디어 피를 보고 만 것이다.

짜앵 소리를 내며 긴장이 달려갔다. 다음 순간 피를 본 군중 위를 분노와 투지가 불꽃같이 터져 일어났다.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야——.”

저마다 학생들은 목이 터지라고 외치며 앞을 다투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없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어떤 뜻을 위하여 죽어 간다면 삶이 한 번 지고(至高)의 표현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결에 휩쓸려 명서는 중앙청 모퉁이까지 와 있었다. 여전히 술한 발들이 열에 떠서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다. 그 때, 그 무수한 발들은 한 시간 후의 운명을 모르고 다리로 다리로 향하고 있었다. 마치 생명의 땅이 거기까지만 가면 약속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거나 한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 무수한 발들은 경무대로 달리는 것이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넘어야만 생명을 찾는 것이라고 믿거나 하는 것처럼.

감각을 잃은 명서의 발은 변함없이 독자의 의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혼란은 내부에도 외부에도 수습할 수 없이 심했다. 그러나 거의 완전히 사고를 잃은 허탈 상태에서도, 한구석에 끼어 남은 의식이 있었다.

이 숨 가쁜 역사의 진폭(振幅)은 자기에까지는 닿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소외감이었다. 저마다가 역사의 주축(主軸)에 몸을 매달고 있다는 자각에 뜨거운 보람을 안고 있는 이 마당에 자기는 스스로 질러 놓은 불을 끄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 마음도 몸도 웅크리고 가는 것이었다. 어쩌면 목적지란 자기의 형장(刑場)일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외아들인 자기에겐 착한, 그리고 약한 아버지였다. 뜨거운 것이 가슴에 고여 왔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육친에의 애정이었다.

‘아버지! 피가 흘렀군요. 드디어 피를 보구 말았군요.’

그는 절망적으로 소리 없이 부르짖었다.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아픔이었다.

‘피가 흘렀어요. 피가 흐르구 있어요.’

가슴 속으로부터 소리 없는 비명이 자꾸만 터져 나왔다.

피—— 그것을 보자 사람은 왜 이렇게 미쳐 버리는 것일까? 이 끈적끈적한 무기미한 붉은 액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증거라 한다. 저마다의 혈관 속을 따뜻이 때로는 너그럽게, 또 어느 땐 숨 가쁘게 달리는 이 검붉은 액체는 저마다의 전신을 달리고 있는 까닭에 서로를 부르는지도 몰랐다.

보도 위에 떨어진 피를 보고 광란하듯 흥분하는 것도, 거기 흐르고 있는 피가 곧 모두의 전신을 달리고 있는 피에 이어져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다. 이 검붉은 무기미한 끈적끈적한 액체 속에 민족을 한데 묶는 비밀이 있고, 미움이, 사랑이 있는 것일 것이다. 이렇듯 무수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 생명의 제전에 참례케 하고, 그 제단 위에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려는 결의를 머금게 하는 것도 이 끓는 피일 것이고 이 피의 연관일 것이다. 그리고 이 연관의 가장 가까운 고리(環)가 이어진 곳에 아버지와 자기가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뜨거운 절망적인 애정이 가슴을 조였다. 그러나 명서는 여전히 군중 속에서 빠져 나가지 않고 있었다. 길이 막혀서가 아니다. 어떤 커다란 질서 앞에 개체가 의지를 상실한 까닭이었다. 그는 피가 배어나오는 발을 여전히 끌며 움직이고 있었다.

아주 가까운 데서 또 총소리가 터졌다.

쌩쌩 총알이 머리 위를 지난다.

“앞드려라 앞드려라. 옆으로 피해라.”

우웅—— 울리는 굵다란 음성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명서는 담옆에 바짝 붙어 앞드렸다.

“개죽음하지 말자! 앞드려라!”

굵다란 음성이 또 울렸다. 명서는 이마 너머로 소리 난 쪽에 시선을 보냈다.

창수가 방패삼아 길에 쌓여 있었던 수도관을 굴리고 가며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바리케이드가 바로 그 앞에 있었다. 바리케이드 저쪽에는 총을 겨누는 경관들이 서 있다.

“바리케이드를 넘으면 쏜다.”

그 중의 하나가 소리쳤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다. 통과시켜라.”

창수가 응수한다.

“넘으면 쏜다.”

“통과하겠다.”

“넘으면 쏜다.”

경관은 외마디 밖에 모르는 로봇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한다.

수도관 이쪽에서 창수는 잠시 망설였다.

수도관이 약간 뒷걸음 쳤다고 본 순간, 수도관을 박차고 창수는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어가고 있었다.

동시에

따 따 따 따——

경관의 총이 불을 뿜었다.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던 명서가 다시 눈을 떴다. 길 위엔 장승처럼 총을 겨눈 경관 외에는 아무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바리케이드 옆에 창수가 쓰러져 있었다.

스스로의 몸에서 흘러 나오는 피에 젖으며 창수의 등은 아직도 가늘게 움직이고 있었다.

“창수?”

명서는 저도 모르게 외치며 벌떡 일어났다.

전세계가 창수의 이름으로 차 가는 것 같았다. 이때,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해 있는 것은 창수와 자기밖에 없었다.

그는 한달음으로 바리케이드 앞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피 흘리는 창수를 끌어 일으켜 어깨에 걸머졌다.

따 따 따 따——

경관의 총이 다시 불을 뿜었다. 뜨거운 것이 목에 와 꽂혔다. 날아온 총이 뒷덜미에 명중한 것이다.

명서는 창수를 걸머멘 채 함께 보도 위에 쓰러졌다.

그의 내부에서는 무한한 시간이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소리를 내며 달렸다. 눈앞을 희끗희끗한 점이 날리더니 그것은 화안히 핀 박꽃이 되었다. 박꽃은 점점 커 가더니 그의 시야를 꽉 채웠다. 그의 머리는 밑에 깔린 창수의 가슴 위로 떨어져 갔다.

삼엄한 정숙이 깃든 도로 위에는 붉은피가 흐르고 있었다. 두 젊은이의 몸에서 흘러 나온 피는 마치 한 사람의 몸에서 흘러 나온 것이 나처럼 한데 엉켜 흐르고 있었다.

(1961. 10. 24.)